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9/07~2026/09/13]

2026.09.14

[로봇] 어질리티로보틱스가 보여준 현실

- 로보티즈 1,000억원 블록딜. 그리고 엔비디아와 공동 워크숍 개최 소식에 주가 강세
- 마이크로텍, 1.5만대 돌파. 기존 5만대 판매 전망에서 훨씬 더 크게 상향될 것
- FCC 수입 규제에 국내 로봇 기업들도 피해.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봇 수출 중단

[방산] MSPO 리부

- 크로아티아 천무 수주. 유럽 네번째 천무 도입국. 한화는 천무 II 공동 개발도 제안
- 폴란드 MSPO 종료. 계약은 없었고, 폴란드 현지화에 대한 내용 다수
- 한화시스템의 새로운 무기, 천광 관심 확대. 유럽-아시아-중동과 수출협의

[조선] 다시 한 번 조선

- HD현대중공업의 엔진 및 SMR 대규모 시설 투자 발표
- 한화오션의 태국 호위함 수주. 그리고 FDC 개념 공개, 캐나다 FLNG Pre-Feed 소식
- 머스크가 90억달러 대규모 발주 계획. 한국과 중국에 42척 컨선 발주 전망

[항공] 8월 항공 데이터

- 한중 노선 승객 10년만에 역대 최고치 경신, 사드 이전 넘어섰다
- 미국 1-7월 데이터센터 관련 수입 항공화물 물동량 +103%yoy 급증
- 공정위, 대한항공 '좌석유지 의무' 완화 요청에 기각 의견

[해운] HMM 벌크 확장

- HMM,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Vale과 4.7조원 규모 장기운송계약 체결
- 파나마에 태풍까지, 해운 운임 코로나 이후 최고점 근접
- 후티 홍해 요충지 모카 점령,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 임박



Weekly Keyword

어질리티로보틱스가 보여준 현실

미국 어질리티로보틱스가 상장을 앞두고 공개한 S-4 서류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 아직 재무 실적은 미약하며, 비즈니스 모델도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보이는 현실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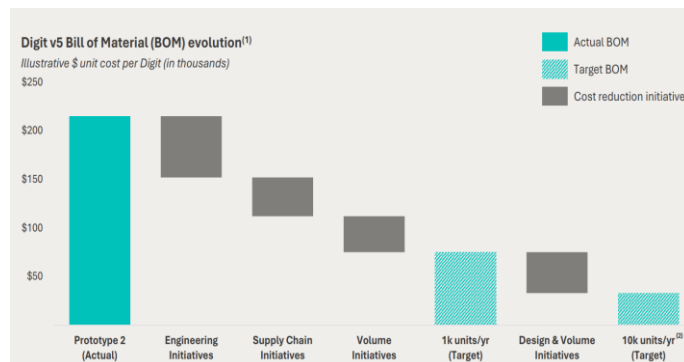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40)

[어질리티로보틱스가 보여준 현실]

- Agility Robotics가 9월 4일 SPAC 합병을 위한 Form S-4를 SEC에 제출. 2025년 순매출은 \$1.78mn, 영업손실 -\$140.18을 기록. 휴머노이드 비즈니스 모델도 공개했는데, RaaS의 경우 월 약 \$8,500 + 초기 Deployment Fee 약 \$25,000을 받는 구조로 5년 사용 시 \$535k 매출 발생. 직접 판매 모델은 로봇 약 \$200k + Deployment \$20k + SW-Maintenance 연 \$36k, 5년 누적 약 \$400k로 비용 부담이 매우 높음. 휴머노이드 Digitv5는 상업 출시 시 약 \$150k → 연 1,000대 생산 시 \$75k → 연 10,000대 생산 시 \$30k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 \$300mn+ 수주잔고 또한 1개 비공개 고객과 체결한 Digitv5 1,000대 3년 RaaS 계약이 대부분. 아직 주된 작업 또한 창고·제조현장의 Tote/Bin 이동 등 반복 물류 작업 수준. 아직 휴머노이드의 상업화 수준은 극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Key Chart: 어질리티의 BOM Cost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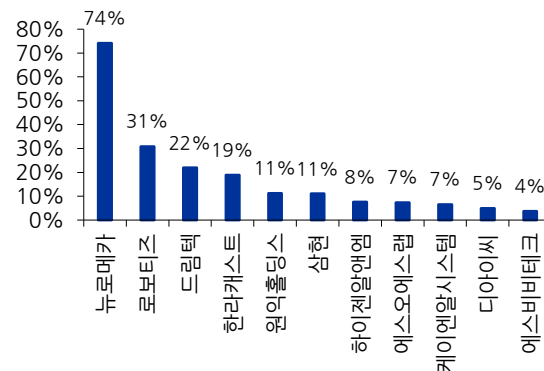


자료: Agility,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9/07~09/13)

[전통 로봇]

- 큐렉소, 브라질·파라과이에 수술로봇 수출

[휴머노이드]

- 삼성 휴머노이드, 내년 CES서 첫선
- 두산로보틱스 2028년 산업용 휴머노이드 PoC 목표
- 삼성병원, 16일 '휴머노이드 수술보조 로봇' 첫 공개

[부품/SW/기타]

- 이준희 삼성SDS 대표 "로봇 투자·M&A 검토"
- 레인보우, 삼성SDS 제조 RX 생태계 합류
- 현대차, 국내에 로봇 데이터 팩토리 짓는다
- 현대모비스, 로봇 근육 '액추에이터' 2종 첫선
- 로보티즈 1,000억 블록딜, 외국계 2곳이 받았다
- 로보티즈, 엔비디아와 '공동 기술 워크숍' 개최
- FCC 규제 시행 이후 레인보우 RB-Y1 美 수출 중단
- 뉴로메카, 포항에 1단계 400억원 규모 파운드리 구축
- HD현대로보틱스, 에이딘로보틱스에 130억 투자
- 휴머노이드 부품 국산화 속도. 정부 620억 투입

[글로벌]

- 마이크로덕, 1.5만대 돌파. 판매량 전망 대폭 상향
- 중국 규제 당국, 유니트리 이후 IPO 기준을 강화
-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 생산 개시
- 中, 휴머노이드 군사용 전환 가속. "5~10년 내 투입"
- 보스턴다이내믹스 OB들이 다이내믹 크리처스 설립
- 어질리티로보틱스, 2025년 180만 달러 매출 기록
- 일본 8월 공작기계 수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



Weekly Keyword

MSPO 리뷰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폴란드 MSPO에서 신규 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이었음.
오히려 폴란드에서 현지화를 강조하며 수출 구조의 변화를 확인.
폴란드 EC-3 계약 체결은 다소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88)

[MSPO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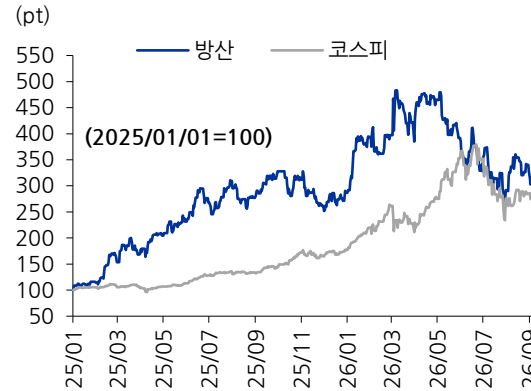
- 아쉽게도 이번 MSPO 2026에서 대형 신규 계약은 없었음. 오히려 한국 직수입 → 폴란드 현지생산·탄약·MRO·공동수출로 협력 구조가 크게 전환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행사였다는 판단. 전시회 기간 중 열린 한·폴 방산협력 토론회에서 폴란드 국유자산부는 향후 협력의 핵심을 현지생산 확대·기술이전·MRO·공동 R&D·제3국 공동수출로 제시. 폴란드 측은 사실상 "폴란드에서 판매하려면 폴란드에 투자하고 현지 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 주요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EC-3에서 MCS 사업을 포함하고, 현대로템은 연내 EC-3 계약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점. LIG는 천궁-II-L-SAM·KGGB를 앞세워 폴란드 다층 방공망을 공략하는 동시에, Rheinmetall 부스에서 양사가 공동 개발 중인 단거리 방공미사일+차량형 발사대 목업을 함께 전시하며 화제.

Key Chart: MSPO 내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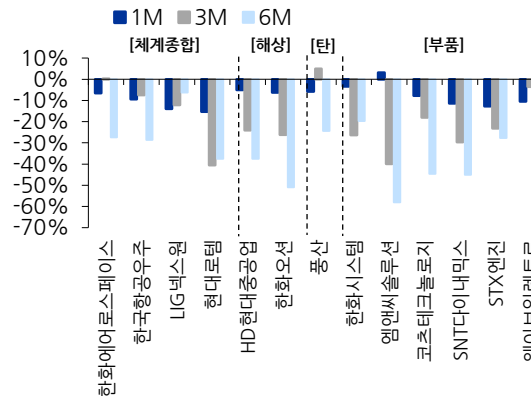
기업	핵심 성과·업데이트
현대로템	엔진 MRO WZM 추천 예정, 기술이전 업체 9곳 중 8곳 선정. 연내 K2 3차 계약 협상 개시. 현지 위장막·교량·무장장치 협업 및 장갑강판 검토 MOU.
한화에어로	천무 발사대·부품 현지생산 라이선스 계약. K9A2·장악 패키지로 K9 3차 계약 추진. 천무 탑재 무인수상정 제안.
LIG D&A	라인메탈 Skynex-C-PGM·ESHORAD 결합 방공 솔루션 공동 제시. 천궁-II-L-SAM 연계 다층방공 마케팅.
한화시스템	위성영상 AI 실시간 분석 시연, K9·천무 연계 인터페이스 공개. 50kW·20km 차량형 레이저 제시.
KAI	GE·WZL-2의 FA-50 엔진 MRO 검토 MOU 체결. 기체 MRO는 기술이전 조건 이전 지속.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vise

방산 주요 뉴스(09/07~09/13)

[수주/계약]

- 크로아티아에 '천무' 6,400억원 규모 수출
- 페루에서 K2 전차와 K808-PE 장갑차 공개

[기업별 이슈]

- 한화, Homar-K 발사대 부품의 현지생산 계약
- 한화, 폴 K9 3차 계약에서 MCS 생산 참여 제안
- 한화에어로, 창원1사업장에 추진기관 공장 증설
- 한화시스템, 천광, 유럽·아시아중동과 수출협약
- LIG D&A, 폴란드 MSPO서 다층방공망·KGGB 전시
- 체코 부총리, LIG D&A 판교하우스 직접 찾아
- LIG D&A, 고스트로보틱스에 또 300억 추가 투입
- KAI 사장 "한화 인수, 방산 경쟁 무너져. 정부 반대"
- KAI가 접촉국으로 루마니아·불가리아·슬로베니아 명시
- 폴란드, K2 1000대 도입 불변. 연내 EC3 협상 개시
- 풍산, '소형 공격드론' 국내 첫 軍 성능시험 통과

[기타]

- 한화, KAI 인사회 진입 추진에 수은 "막을 명분 없다"

[글로벌]

- L3Harris, 록히드마틴과 패트리엇 47억 달러 계약
- Covenant, 28년부터 저비용 미사일 연 1.2만발 생산
- 록히드마틴·사브 GMLRS, 패트리엇 현지 생산 협력
- 노스롭, 2029년까지 로켓모터 연 25,000개로 증산
- 라인메탈, MSPO서 LIG 단거리 방공미사일 목업 전시
- 스웨덴, 7.3억 달러 규모 HIMARS 계약
- 폭스바겐, 독일 공장 라파엘에 매각. 방산 전환



Weekly Keyword

다시 한 번 조선

그동안 침체되어있던 조선 업종에 HD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시설투자 공시와 한화오선의 태국 호위함 우협 선정이라는 호재가 찾아옴. 특히 HD현대중공업의 DC 항 엔진 사업 확대에 주목.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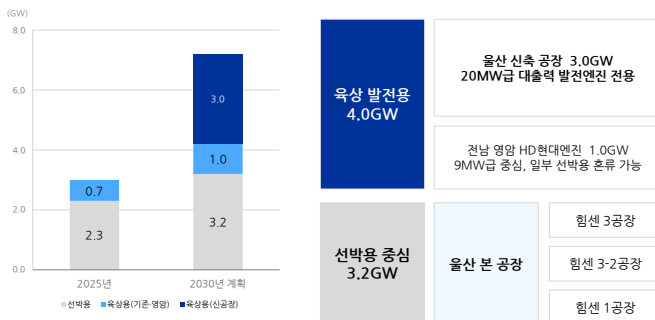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8)

[다시 한 번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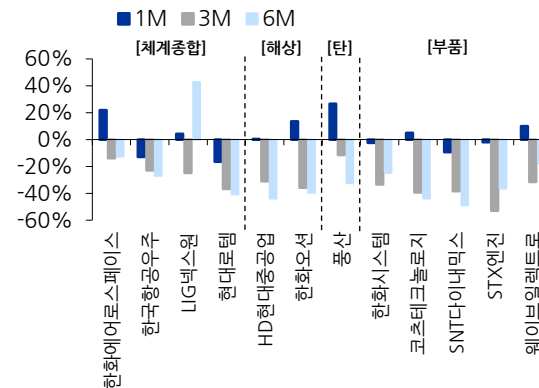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이 발전엔진 8,336억원 + SMR 2,386억원 = 총 1조 722억원을 투자해, 힘센엔진 CAPA를 3GW→2030년 7.2GW로 확대하고 Natrium용 SMR 주기기 전용공장까지 구축 추진. AI 데이터센터 전력시장과 차세대 원전이라는 신규 성장축을 위한 시설 투자.
- 한화오선도 치열한 경쟁 끝에 태국 왕립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계약 규모는 6,833억원. 향후 후속함까지 포함하면 최대 4조원대 장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가능성.
- 캐나다 잠수함 실주 이후 모멘텀이 제한적이었던 조선 업종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

Key Chart: HD현대중공업 시설 투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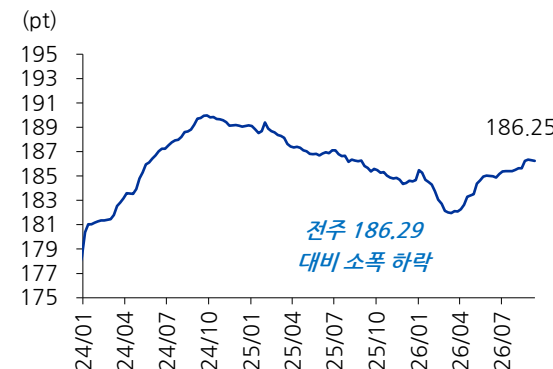


자료: HD현대중공업,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9/07~09/13)

[상선/해양]

- HD현대중, 엔진 및 SMR 생산라인 1조원 투자
- 차세대 쇄빙연구선 한화오선 거제서 11일 착공
- 한화오선, 60MW급 부유식 데이터센터 처음 공개
- 加 Kanata FLNG 한화오선과 pre-FEED 추진. 28년 초 FID

[특수선]

- 한화오선, 태국 호위함 사업자 최종 낙점
- 정기선, 필리핀 국방장관과 조선·방산 협력 확대 논의
- 오스탈 CEO "한화 인수 제안, 美 국방부 수뇌부 지지"
- 미 투자사, 오스탈USA에 최대 13.5억 달러 제안
- 美해군 1인자, 한화 필리조전소 방문
- HD현대, 안두릴 공동개발 '무인수상정' 첫선
- 韓, IAEA에 핵잠 도입 위한 협의 시작 의향 통보
- 美해군, 韓 핵잠 도입에 "분명한 목적 있어야"

[기타]

- LNG선 화물창 '국산화 재도전'
- HD현대, 인도 타밀나두 상무부 장관 독대
- HD현대중 잇단 중대 재해, 국감 도마 오르나
- 러시아 '아틱 LNG 2', 한화오선에 10억달러 배상 요구
- HD한국조선해양, 지멘스와 'AI 조선소' 후속 협의

[글로벌]

- 머스크, 90억 달러 규모 선박 발주 계획
- 조디악 마리티엄, 조선소들과 LNG 운반선 신조 논의
- 加 "TKMS 잠수함, '북극 검증된 잠수함' 의문"
- 中, 이집트 잠수함 4척 수주전 가세



Weekly Keyword

8월 항공 데이터

8월 국제선 여객은 935만명(+10%yoy)으로 일본, 중국 중심의 단거리 수요 강세 지속. 화물도 견조한 흐름 유지. 9월은 추석 효과와 AI 관련 화물 수요 지속되며 양호한 업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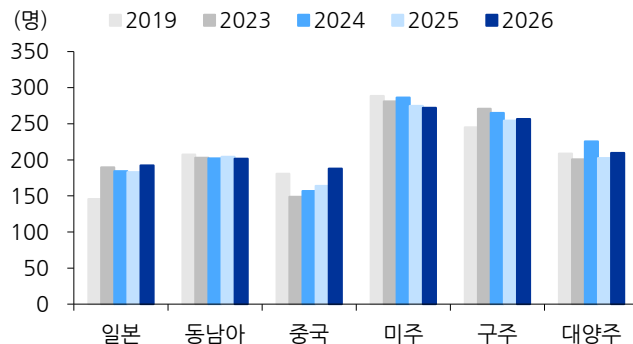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8)

[8월 항공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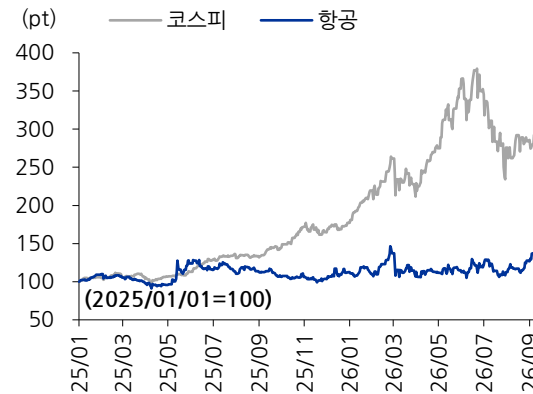
- 8월 전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935만명(+8%mom, +10%yoy)으로 여름 성수기 수요 강세 지속. 일본(+19%yoy), 중국(+29%yoy) 등 단거리 노선이 성장을 견인. 특히 중국은 운항편수 증가(+12%yoy)를 상회하는 편당 여객 수 증가(+15%yoy)를 기록.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은 26만톤(-4%mom, +9%yoy)으로 전년대비 견조한 흐름 유지.
- 9월에도 추석 연휴 효과와 AI 관련 고부가 화물 수요를 바탕으로 여객·화물 모두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21단계로 상승했으나, 견조한 수요와 최근 환율 하락을 감안하면 3분기 항공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업종 내 FSC 중심의 선호를 유지하며, 대한항공을 최선호주로 유지. LCC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과 제주항공의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

Key Chart: 인천공항 노선별 편당 여객 변화(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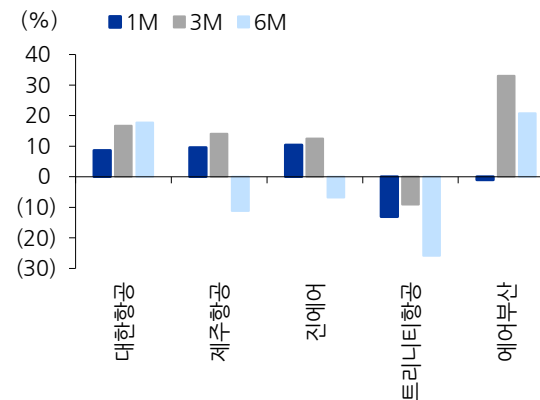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9/07~09/13)

[여객/화물]

- 한·중 노선 승객 10년만에 역대 최고치, 사드 이전 넘어섰다
- 항공화물도 디지털 전환, 'KOREA AIR CARGO DAY' 개최
- 1~7월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항공화물 물동량 +103%yoy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화물도 고공행진, 반도체 업고 장기계약 3배
- 대한항공, 회사채 수요예측 모집예정액 2배 이상 자금 모집
- 대한항공,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서 차세대 인프라 구현
- 대한항공·아시아나, 15일부터 무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 공정위, 대한항공 공급좌석 유지 의무 면제·완화 요구 기각
- 진에어 유니온페이 제휴 프로모션, 中 노선 확장 연계
- 김포-제주 하늘길 잡은 제주항공, 5개월 연속 수송객 1위
- 제주항공 인천-대구-구이린 노선 공급, 가을 여행 수요 공략
- 이스타항공 中 여행 플랫폼 '플리키'와 협력, 방한 수요 확대
- 트리니티항공 10일부터 본격 운항, SSC 서비스 확대
- 트리니티항공 인천-바르셀로나 취항 2주년, 탑승객 16만명
- 한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방송장비 국제운송 전담

[기타]

- 1,500원대 공포 끝났다, 원화 강세에 탄력받는 항공주

[글로벌]

- 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이란전 끝나고 휘발유값 급락할 것"
- 日, 2030년까지 소액화물 전수 X선 검사 체계 구축
- 고속철 확산에 항공수요 뺏겼다, 에어버스 中 수요전망 하락



Weekly Keyword

HMM 벌크 확장

HMM은 Vale과 4.7조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며, 벌크 사업 확대를 지속. 장기계약 비중 확대를 통해 벌크 부문의 이익 가시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1)

[HMM 벌크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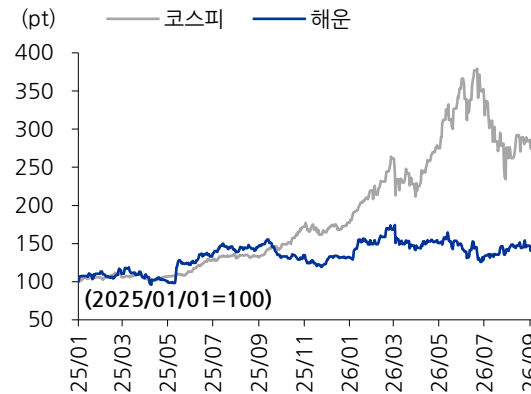
- 9/8 HMM은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 Vale과 총 4.7조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 2030년부터 21만DWT급 Newcastlemax 8척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며 계약기간은 척당 25년. 작년 5월과 9월 체결한 총 1.1조원 규모의 10년 장기계약에 이은 세 번째 계약으로, 지난 6월 발주한 벌크선 8척의 화물을 선제적으로 확보.
- HMM은 지난 7월 발표한 중장기 전략에 따라 기존 컨테이너 중심의 이익 구조에서 벗어나 벌크 선대를 확대하며 선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 중. 동사 벌크 선대는 '25년말 51척에서 2Q26말 61척으로 증가. 선대 확대와 더불어 우량 화주와의 장기계약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벌크 부문의 이익 가시성과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전망.

Key Chart: 2030 HMM 중장기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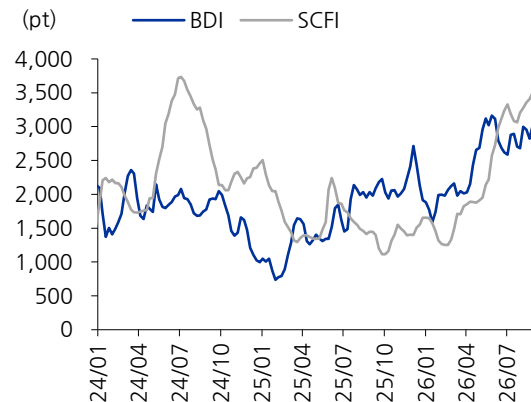
	컨테이너	벌크
투자금액	19.2 조원 투자	8.5 조원 투자
선대규모	147 만 TEU, 166 척	1,352 만 DWT, 110 척
목표	Hub&Spoke 기반 네트워크 확장 및 경쟁력 강화	장기계약 중심 안정적 수익 확보
내용	운영 항로 66 개 → 85 개 원양:근해 90:10 → 76:24	장기계약 비중 55% → 71%
2030 HMM	매출액 17 조원(2025년 대비 +61%) 자산 45.9 조원(2025년 대비 +37%) 부채비율 50% 이내 관리 목표	

자료: HMM,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

해운 주요 뉴스(09/07~09/13)

[벌크선]

- HMM, 브라질 최대 광산업체와 4.7조 규모 장기운송계약
- 대한해운, 중국 저장해운과 421억원 벌크선 장기대선계약
- 에이치라인해운, 포스코 장기계약 연계 벌크선 2척 발주
- 우양상선, 발레와 25년 장기운송계약 체결.벌크선 4척 발주
- 핸디사이즈, 장기투자 가치 높은 고품질 투자처로 부상

[탱커/가스선]

- DNV, 2030년까지 LNG빙커링 선대 2배 이상 확대 필요
- VLCC 운임 사상 최고치 80만달러 육박, 에너지 위기 심화
- 팬오션 VLCC 후발주자 약점 해소, 장기계약재무여력 무기

[컨테이너선]

- HMM 부산 이전 본격화, 최원혁 대표·일부 인력 내달 이동
- Hapag-Lloyd, 이스라엘 정부 우려 대응해 ZIM 인수안 수정
- 컨테이너 물동량 7월 역대 최고치 경신, 동아시아 물량 견조

[기타]

- 파나마에 태풍까지, 해운 운임 코로나 이후 최고점 근접
- 미군, 이란 원유수출 허브 하르그섬 인근서 유조선 공습
- 후티 홍해 요충지 모카 점령, 바브엘만데브 해협 장악 임박
- 이란전 격화에 유가 고공행진, WTI도 배럴당 100달러 돌파
- 흑해서 해양예인선 드론 공격, 선원 2명 사망·2명 부상
- 파나마 운하 관리청, 네오파나막스 흘수 조정 연기 결정
- 엘니뇨 현상, 글로벌 해상무역 및 공급망 재편 초래
- 해수부, 북극해 누빌 차세대 쇄빙연구선 본격 건조 착수
- 자동차선 신조 발주 급증, 중국 신항선사 발주 증가 주목